

산업재해율 추이

- 2009년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0.70%로 나타나 전년대비 0.01%p 감소하였으나 재해자수는 전년대비 2,015명 증가하는 등 최근 10년 동안 산업재해율은 0.7%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음.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¹⁾는 2008년 기준 70,097천 일로 나타나 동 기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809천 일의 87배에 달하며,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17조 1천 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전년대비 9.6%, 5.5% 증가함.
 - 산업재해통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재해자)를 집계한 것이며, 산업재해율은 연간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을 말함.
- 신규장애판정자의 평균노동능력상실도 증가
 - 이는 재해근로자의 생산활동능력 감소의 증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저하의 심화를 나타냄.²⁾

〈표 1〉 우리나라 산업재해율 추이

(단위: 천 명,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근로자수(천 명)	9,486	10,581	10,571	10,599	10,473	11,059	11,689	12,529	13,490	13,884
재해자수	68,976	81,434	81,911	94,924	88,874	85,411	89,910	90,147	95,806	97,821
재해율	0.73	0.77	0.77	0.90	0.85	0.77	0.77	0.72	0.71	0.70
평균노동능력상실	25.4	25.8	26.0	25.6	24.9	26.5	27.8	27.6	27.1	-

주: 평균노동능력상실도(%) = $\frac{\sum \text{산재등급별 산재장해판정자수}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도}}{\text{산재장해판정자수}}$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 1) 근로손실일수는 (신체장애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 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이다.
- 2) 윤조덕(2010), 「산재보험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표 2> 우리나라 산업별 산업재해율 비교(2008년, 2009년)

(단위: 명, %)

	2009년 12월 말				2008년 2월 말				재해자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	재해율	차이	
전 체	13,884,927	97,821	(100.0)	0.70	13,489,986	95,806	(100.0)	0.71	2,015	
산업별	광업	13,732	1,118	(1.1)	8.14	14,663	1,297	(1.4)	8.85	-179
	제조업	3,182,262	32,997	(33.7)	0.104	3,104,554	35,848	(37.4)	1.15	-2,851
	건설업	3,206,526	20,998	(21.5)	0.065	3,259,512	20,835	(21.7)	0.064	163
	전기가스수도업	52,952	114	(0.1)	0.22	54,479	99	(0.1)	0.18	15
	운수창고통신업	708,584	4,372	(4.5)	0.62	703,249	4,739	(4.9)	0.67	-367
	임업	74,109	3,091	(3.2)	0.417	66,269	1,671	(1.7)	0.252	1,420
	기타의 사업	6,022,102	33,961	(34.7)	0.056	5,673,798	30,160	(31.5)	0.053	3,801
	기타	624,660	1,170	(1.2)	0.019	613,462	1,157	(1.2)	0.019	13
규모별	300인 미만	10,943,103	91,382	(93.4)	0.84	10,544,296	88,760	(92.6)	0.84	2,622
	5인미만	1,919,024	33,663	(34.4)	0.175	1,950,220	30,919	(32.3)	0.159	2,744
	5인 ~ 49인	5,430,078	44,196	(45.2)	0.081	5,146,382	44,132	(46.1)	0.086	64
	50인 ~ 99인	1,475,474	6,745	(6.9)	0.046	1,393,913	6,804	(7.1)	0.049	-59
	100인 ~ 299인	2,118,527	6,778	(6.9)	0.032	2,053,781	6,905	(7.2)	0.034	-127
	300인 이상	2,941,824	6,439	(6.6)	0.22	2,945,690	7,046	(7.4)	0.24	-607
	300인 ~ 999인	1,520,372	3,100	(3.2)	0.020	1,519,989	3,163	(3.3)	0.021	-63
	1,000인 이상	1,421,452	3,339	(3.4)	0.023	1,425,701	3,883	(4.1)	0.027	-544

주: 1) ()안은 전체 재해자수 대비 산업별, 규모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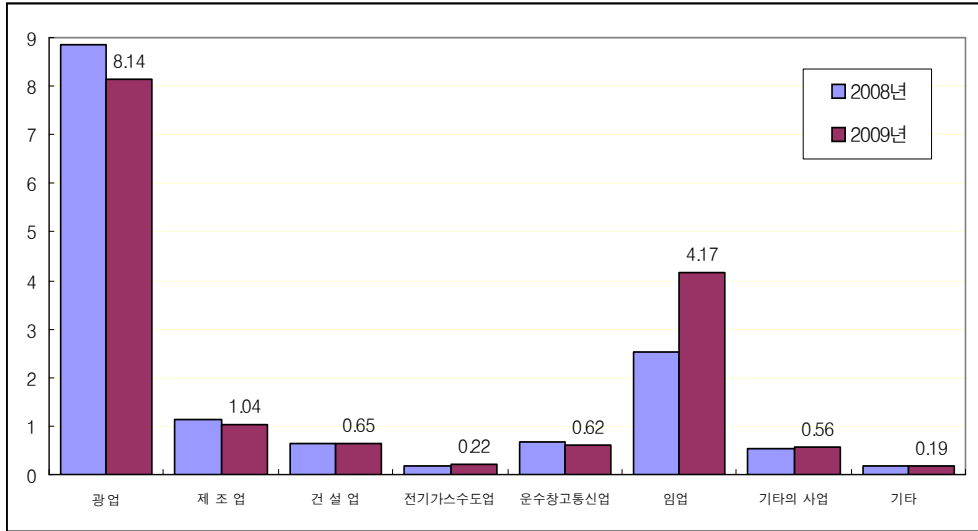
2) 기타의 사업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는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임.

자료: 노동부, 「200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09년 재해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기타의 사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34.7%, 33.7%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자의 79.6%에 해당하는 77,85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3,961명으로 재해다발 업종인 제조업(32,997명)과 건설업(20,998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0년 재해율 목표를 0.65%로 설정하고 각종 재해예방정책을 펼치기로 함.
 - 2009년 재해가 크게 늘어난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을 신설하여 산재예방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도소매업종 등 6개 세부업종 10만 개소에 대해 집중 지원계획임.

[그림 1] 우리나라 산업별 산업재해율(2008년, 2009년)

(단위: %)



자료: 노동부, 「200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또한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과 직업재활사업의 지원시기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조기실시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직업훈련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KLI**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